

고흥군, 지역농협과 함께 간편형 스마트팜 보급 확대

2024년 40개소→2025년 20개소 추가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기능 제공
KT참여 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
농업 생산성·경영 효율성 제고 목표

고흥군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기존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편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지난해 40개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도 20개소를 추가 보급한다.

간편형 스마트팜 시스템은 온도센서를 통해 온습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원격으로 온실을 개폐하며 내부 영상망(CCTV)을 통해 온실의 작

상황 등 내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과 흥양농협이 협력하고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마트팜 시스템 활용에 필수적인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위해 케이티(KT)가 참여한 사례로, 지역 농가를 위한 중요한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

사업대상지는 오이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지역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의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한 농가들은 항상된 작업 효율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기상 여건에 따라 온실 환경 관리를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온실을 오가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온습도를 확인하고 화면 터치 한 번으로 온실을 개폐가

능할 수 있게 되었다.

작업 중에도 제어판을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자리에서 온실을 제어할 수 있어 수확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기반 구축 사업의 확대는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22일 고흥군 영남면 관계자들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세대를 찾아 청소와 생활정비 활동을 펼쳤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영남면, 어르신 세대 청소 봉사활동

고흥군 영남면이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청소와 생활

정비가 어려운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처리와 생활 불편 해소, 말벗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

겨울철을 대비한 주거 안전 점검도 함

께 실시해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장경철 영남면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과 안부 살피기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친환경 유기농 바라미쌀 10톤 미국 수출길

장흥군은 지난 23일 용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쌀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바라미쌀'은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회장 권영식) 회원 작목반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쌀이다.

올해 친환경 유기농쌀 수출 계약물량은 총 20톤으로 이 가운데 10톤이 먼저 미국으로 출발했다.

수출은 장흥군 소재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K&G글로벌'을 통해 미국 LA지역 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유기농쌀은 10kg으로 개별 소포장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권영식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 유기농쌀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향



지난 23일 장흥군이 용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유기농쌀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매년 수출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내년에는 유기농쌀

100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기농쌀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당부

보성군은 올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4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의 본격적인 시작에 맞춰 지난 22일 부터 보성읍, 조성면(23일), 별교읍(24일) 전통시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홍보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76명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중대재해저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진화대원들은 군청과 읍면별로 배치돼 지역 내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무 경력이 짧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교육과 산불 진화차량 운용 요령 등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산불 없는 안전한 보성을 만들겠다"며 "만일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구례군, 농업인 대학 교육생 모집

구례군은 지역농업 특화 발전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제17기 구례군 농업인 대학' 교육생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흙 살리기'를 주제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토양의 이해, 논·밭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사용법, 비료, 퇴비, 친환경 농자재 사용법 등이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교육 시간 중 70% 이상 출석한 교육생은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haha1644@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780-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 흙 살리기는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생태 경제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흥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선발

장흥군은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사 모집은 2월7일 까지로 제출 서류는 지원서, 이력서, 강의계획서, 해당분야의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을 갖춰 군 총무과 미래교육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생활원예, 요가, 민화, 통기타, 바둑 등의 강좌 등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약 100여명의 군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한 취미활동을 즐기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아가 작품전 발표회·평생교육박람회 참여 등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데 공헌했다.

2025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3월-6월 중으로 계획돼 있으며, 정남진도서관, 장흥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총무과(061-860-5602)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전환 기자